



이특영

“24년 잡았던 활 놓지만 광주양궁 발전 힘 보탬 것”

광주시청 양궁 간판 이특영 은퇴

“선수로서 양궁은 내려놓지만, 광주양궁 발전을 위해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광주 여자양궁을 대표하는 이특영(33·광주시청)이 24년간 함께했던 활을 내려놓는다.
 지난 23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만난 이특영은 “가정과 선수 두 가지 다 최선을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책임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은퇴배경을 밝혔다.
 두암초 4학년 때 양궁지도자인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활을 잡은 이특영은 동명중에 진학, 2학년 때 첫 출전한 소년체전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이특영은 “그 때의 금메달이 강한 동기부여가 돼 오직 양궁만을 위한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소년체전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 개인전 우승자 자격으로 참가한 그해 양궁 종합선수권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며 최연

중3 때 최연소 국가대표 선발
 세계선수권·AG 등 잇단 제패
 2008년 실업팀 광주시청 입단
 어깨 부상 재활 딛고 인천AG 금
 “제2 양궁 인생 계속 이어갈 것”

소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특영은 “중학교 3학년인 제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박성현, 윤미진 언니를 제치고 1등을 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특영의 최연소 국가대표는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다.
 광주제고 1학년때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스포 인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은메달, 단체전

금메달을 다음해 열린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단체전 금메달, 이듬해 독일 라이프치히 세계양궁선수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 스타 반열에 올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특영은 많은 이들의 기대와 응원을 받으며 2008년 실업무대(광주시청)에 첫 발을 내딛는다.
 하지만 이특영에게 주위의 기대는 독이 됐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의욕이 앞선 그녀는 신체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힘의 양궁’(43파운드)으로 남보다 더 많은 훈련을 묵묵히 소화했다.
 결국, 실업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리한 훈련을 이어가던 그는 어깨부상이라는 악재를 맞는다. 하지만 힘든 치료와 재활을 버텨내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수확하며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016년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1차선발전전을 3위로 마감하며 2차선발전에서 6위만 차지해도 리우행을 확정지을 수 있었지만 손가락 부상이라는 악

재로 7위를 차지하며 아쉽게 태극마크를 놓친다. 이특영은 이 순간을 양궁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라고 말한다.
 올림픽 꿈을 놓친 그녀는 슬럼프에 빠졌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으로 방황하던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가족이었다.
 2017년 가정을 꾸린 이특영은 다시 안정감을 찾으며 사대에 선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부상은 항상 그녀의 발목을 잡았고, 그때마다 지루하고 힘든 치료와 재활로 이를 극복해 나갔지만 결국 활을 내려놓게 됐다.
 이특영은 “광주시청 선수로서 15년은 값진 시간이었다”며 “개인적인 바람은 제2 양궁 인생을 자랑스럽게 이어가는 것이다. 어느 자리에서든 멋진 선배의 모습을 보여 선한 영향력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게 선배로서의 마지막 역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러시아, 한국과 월드컵 지역 예선 치를까

아시아축구연맹 가입 검토

러시아가 유럽축구연맹(UEFA)을 탈퇴하고 아시아축구연맹(AFC)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24일 “러시아가 UEFA를 떠나 AFC로 향하는 것에 대해 27일에 결정할 것”이라고 알렉산더 듀코프 러시아 축구협회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듀코프 회장은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축구협회 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27일 회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그날(UEFA 탈퇴와 AFC 가입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축구의 강점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 유럽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택지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일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AFC는 우리를 받아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등 국제무대에서 퇴출당했다.
 2024년 유럽선수권대회 조 추첨에서도 제외됐다. 러시아는 이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 연방국들과 비공식 친선 경기만 치렀다.
 러시아 스포츠의 ‘아시아행 검토’는 이날 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서밋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측은 “기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징계를 존중하면서 이 나라 선수들이 아시아 지역 대회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 아시아 지역 예선을 거쳐 출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러시아의 AFC 가입 더 나아가 OCA 가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경우 2023년 AFC 아시안컵이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러시아를 상대하게 될 수도 있다. 러시아의 FIFA 랭킹은 37위로 우리나라의 25위보다 낮지만 AFC로 넘어올 경우 단숨에 아시아 정상을 놓고 경쟁할 만한 전력을 갖춘 팀이다. /연합뉴스



물살 가르며 26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항구에서 열린 ‘시드니-호바트 요트 경주대회’에 참가한 요트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세계 3대 요트 경주 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대회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109개 요트가 출발해 약 1200km를 횡단한다. /연합뉴스

고진영 을 수입 74억...여자 선수 전체 18위

1위는 오사카 나옴이

고진영(27)이 2022년 한 해 여자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18번째로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3일(한국시간) 발표한 2022년 여자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에 따르면 고진영은 올 한해 580만 달러(약 74억4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한국 여자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고, 전 종목 선수들을 통틀어서는 18위에 해당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고진영은 지난해 이 순위에서는 연 수입 750만 달러로 6위를 기록했다.
 올해도 테니스 선수들이 어김없이 강세를 보였다. 오사카 나옴이(일본)가 5110만 달러, 한국 돈으로 655억6000만원을 벌며 4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오사카는 지난해 순위에서도 5730만 달러로 1위였다.
 상위 10위 안에 7명이 테니스 선수로 채워졌다.

올해 9월 은퇴한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4130만 달러로 2위에 올랐고,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급부상한 스키 선수 구아이링(중국)이 2010만 달러로 테니스 이외 종목 선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4위는 9월 서울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하나은행 코리아오픈에 출전했던 에마 라두카누(영국)로 1870만 달러를 번 것으로 집계됐다.
 5위는 여자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 이가 시비우테크(폴란드)의 1490만 달러다.
 6~10위는 비너스 윌리엄스(1210만 달러), 코코 고프(1110만 달러), 시몬 바일스(1000만 달러), 제시카 페굴라(760만 달러 이상 미국), 이민지(호주 730만 달러) 순이다.
 바일스가 체코, 이민지는 골프 선수고 윌리엄스와 고프, 페굴라는 테니스 선수다.
 한국 선수로는 고진영 외에 전인지(28)가 570만 달러를 벌며 공동 19위에 올랐다.
 골프 세계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690만 달러의 수입으로 14위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빅매치 29일 현대건설 vs 흥국생명

크리스마스 이브에 흥국생명은 기분 좋은 완승을 했고, 크리스마스에 현대건설은 뼈아픈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오는 29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리는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1·2위 맞대결이 더 흥미로워졌다.
 1위 현대건설은 25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벌인 KGC인삼공사와의 방문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2-3으로 패했다. 올 시즌 개막전부터 이어온 15연승 행진과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를 포함한 16연승 행진이 동시에 끊겼다.
 전날(24일) IBK기업은행과의 인천 홈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하고 달콤한 휴식을 즐기던 흥국생명에는 희소식이었다.
 현대건설이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멀게만 보이던 1·2위 팀의 승차가 3점으로 줄었다.
 현대건설은 승점 42(15승 1패), 흥국생명은 승

점 39(13승 4패)를 쌓은 채, 올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흥국생명이 세트 스코어 3-0, 3-1로 이겨 승점 3을 추가해도 다승에서 밀려 1, 2위 순위는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독주 체제는 깨뜨릴 수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2경기를 부상으로 전열에서 빠진 ‘해결사’ 야스민 베다르트(등록명 야스민)와 국가대표 미들 블로커 이다현 없이 치렀다.
 22일 한국도로공사전에서는 3-1로 승리했지만, 25일 KGC인삼공사전에서는 패했다.
 29일 흥국생명과의 경기도 야스민과 이다현을 빼고 치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흥국생명은 ‘100% 전력’으로 현대건설과 맞설 수 있다. 흥국생명은 2021년 1월 8일 현대건설에 승리한 뒤, 9경기의 맞대결에서 연거푸 패했다. /연합뉴스



김연경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3
신년음악회

GWANGJU SYMPHONY ORCHESTRA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70회 정기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1-17(화)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